

## 합동전화

로카 디 파파 2018년 6월 16일 20시

### “우리를 시작으로”

#### 1. 시작 과 인사

(박수)

로베르타 포르미사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소식을 들으며 매우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는 특별한 합동전화화가 될 것입니다.

후고 마르퀘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5월 10일에 교황님께서 로비아노를 방문하셨는데 정말 특별한 이벤트이었고, 이 합동전화 2부에서는 엠마우스, 헤수스와 함께 그 날을 되새기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직 우리 소개를 하지 않았네요: 나는 베네수엘라에서 온 후고이고 36살이며 여기서 가까운 로마의 한 포콜라레에서 살고 있으며 얼마 후 콜롬비아의 보고타로 떠납니다.

로베르타: 나는 로베르타이며 나폴리 사람입니다. 신문기자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젠페스트에 참석하기 위해 많은 이들과 함께 7월 1일 마닐라에 갑니다.

후고: 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등 누리소통망(소셜 네트워크)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올려진 젠페스트 포스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베르타: 여기에는 요 며칠간 로마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 정교회, 개신교, 성공회, 가톨릭등의 다른 그리스도 교회 포콜라리들이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합동전화에 우리와 함께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후고: 또한 요 며칠 동안 모임을 하고 있는 이탈리아 치따누워바(그물) 간행물 모임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인사를 전합니다. 그 중 몇 분도 여기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엠마우스, 헤수스, 간단히 인사하시겠습니까?

엠마우스: 물론이지요!

먼저, 그들의 노고에 용기와 지지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 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근본적인 가치를 밝히며, 형제애를 믿는 백성이 존재한다는 것의 산 증인들입니다. 단지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과 섬세히 보며 거기서 오는 용기를 가지고, 일치의 카리즈마가 주는 빛 안에서 일치를 이루면서 나아가도록 하세요.

치따누워바를 많이 응원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헤수스: 나도 인사드리며 용기를 가지라고 지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쓴 것처럼, 오늘날에는 더욱더 진실되고 확실한 통신수단과 정보 습득, 그리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넘쳐흐르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은 우리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치따누워바같은 간

행물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용기를 내시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박수)

후고: 예전과 같이 여러분들의 인상문, 제안사항, 사진 등을 메일이나 페이스북에 그리고 새로운 전화번호+39 320 419 71 09 로 보내 주실 수 있습니다.

로베르타: 우리의 눈에는 아직도 지난 며칠 동안 과테말라에서 있었던 화산 폭발 모습이 선합니다. 백 명 이상의 사상자와 천여명의 피난민을 유발시켰습니다. 과테말라 도시에 마르코 카란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르코, 들리나요?

마르코카란자: 모두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립니다.

우고: 안녕하세요 마르코, 잘 지내시나요?

마르코: 예, 잘 지내고 있고, 정말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전화연락, 기도, 경제적 지원 등으로 관심을 갖고 연대감을 형성해주신 세상 곳곳의 포콜라레 운동 모든 분들께 감사 드려요.

“후에고 화산”은 과테말라의 37개 화산 중 하나이며 아주 강하고 지속적인 분출로 살아있는 화산입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이처럼 커다란 재난을 유발시켰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고아가 되었으며 가정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사랑과 단결은 정말 컸습니다.

여러 도시에서처럼 포콜라레 운동에서 주체하는 “피오레 교육센터”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모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솔선자, 후고 이야기입니다. 그는 무거운 재로 인해 지붕이 무너진 한 친구에게 지붕을 고칠 수 있도록 얼마의 돈을 가져다 주었는데 한 시간 후에 누군가 후고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 보았더니 “이 생활품들은 너과 너의 엄마를 위해 가져왔어요” 하며 보자기 하나를 건네 주었습니다

후고는 마치 끼아라의 초창기 경험을 다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로베르타: 고마워요 마르코.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함께 있는 모든 분들께 인사 전합니다.

마르코: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중에 일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과테말라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로베르타: 감사합니다.

## 2. 이탈리아 보이지 않는 국경선

후고: 피난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미국과 멕시코 사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베네수엘라에서도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여러 나라처럼 극심한 피난현실을 살고 있는데 모두 참으로 극적인 상황입니다.

이탈리아도 많은 피난민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거쳐 옵니다. 바다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북유럽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바로 이탈리아와 프랑스 국경도시인 벤티밀리아입니다. 지금까지 그곳을 거친 사람은 십 오 만명이나 되는데 지금은 국경이 닫혀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이주민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상황을 스스로 짚어낸 이들과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그 지역에 갔습니다.

수단(젊은 아랍 이주민) 리비아에서의 많은 수모를 당했지만 이렇게 살아서 건강하게 이탈리아에 도착하게 된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프랑스로 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음악 - 제목: 보이지 않는 국경선

압둘 라하마니(문화 중재자- 아프가니스탄): 우리는 이곳 이탈리아와 프랑스사이에 있는 국경선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불쌍한 소년들이 프랑스로 가기 위해 이곳에 옵니다. 어떤 아이는 이 길을 지나가다 밤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크ристи안 파피노, 카리타스 회장- 이탈리아의 벤티밀리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요? 약 3년 전에 국경선이 닫히면서 난민들은 이곳 벤티밀리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만큼 했습니다. 램페두사는 열린 문이고 벤티밀리아는 닫힌 문입니다. 여러 그룹, 포콜라리니, 비정부기관, 프랑스 사람 등 많은 이들이 우리를 도와 주었습니다.

리토 알바레스신부, 잔케테 본당 - 이탈리아 벤티밀리아: 우리는 이곳에서 55 개국에서 온 1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여자들, 어린아이들, 보호자 없는 아이들, 병든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저희를 변화시켰고, 저희들의 생각을 넓혀 주었으며 무엇보다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었습니다.

베에라 산토이안니, 까리따스 식당봉사자 - 이탈리아 벤티밀리아: 이탈리아의 벤티밀리아는 넘어갈 수 없는 국경선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서만은 외면당하지 않고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이 상황은 2015년, 수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나라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프랑스로 가고 있고, 국경선만 넘으면 다행히도 훌륭한 프랑스 사람들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명, 300명 어느 때는 1000명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리토 알바레스신부님: 그들은 평온함을 되찾았고, 형제들을 만났고,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 주는 누군가를 만난 것입니다.

산드로 포레티- 카리타스 식당- 이탈리아 벤티밀리아: 나는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누가 나에게 대가를 지불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리토 알바레스신부님: 성당은 2016년 5월 31일부터 2017년 8월 14일 까지 440일 동안 열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번도 그들의 국적이 어딘지, 종교가 무엇인지 묻지 않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만 알고 싶었습니다.

파올라 아모레티, 치과의사- 임페리아,이탈리아: 그들 중 가장 연약한 사람들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여행도중에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자주 정신적 고통에 잠겼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토니 알바레즈신부님: 마을 시민들 중 몇 사람이 반기를 들었고 도 와 자치 도시에서 이곳을 단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이 봉사는 중단되었습니다. 반기를 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그들을 너무 잘 대해줘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인다는 것, 그리고 이 것이 도시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어주었고 그들과 같이 아퍼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 가정들을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습니다.

장파올로 데 루치아 - 벤티밀리아 이탈리아: 나는 경찰입니다. 국경 경찰로써 추방, 재 입국 허가, 거부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의 직업이 벤티밀리아를 지나는 많은 형제들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2015년 6월, 국경선이 단혔을 때에 나는 바로 우리 집 아래에서 그 역사가 펼쳐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실제로, 어느 날, 바로 우리 집 베란다 밑에서 봉사자들이 80명 정도의 피난민 소년들과 함께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도와 주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형제들을 위해, 특별히 피난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압둘 라흐마니: 보세요. 여기 옷 무더기가 있어요. 여기서 난민들이 먹고 마신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들은 여기를 지나가요. 이곳에 머물러서 옷을 바꾸어 입고 "죽음의 길"을 향해 다시 떠나요.

델리아 본우오모, 호비트 커피숍 -벤티밀리아 이탈리아: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인간적인 삶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그들 사이의 탐탐이라는 소통망이 형성되었는데 오늘날에는 한 커피숍으로 변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단골 고객이 차츰, 차츰 사라지게 되면서 이슬람 신도들이 먹을 수 없는 소세지가 든 빵이 자연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게임방이 지금은 아이들이 공부하고 놀 수 있는 놀이방으로 변했고, 한 때 아이들 기저귀를 바꾼다거나 모유 수유할 장소가 없어 불편을 겪던 엄마들을 위해 이들이 편히 쓸 수 있는 도구들이 갖춰진 유아방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 덕분에 나는 여러 조합이나 많은 봉사자들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그들이 내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 줍니다.

만일 내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는 것'입니다.

토니 알바레즈 신부님: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의 미술작품 *Venere degli stracci* "넝마주의 비너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헨 옷 무더기 앞에 잠깐 멈춥니다. 이 작품은 "이것이 아름다움이다. 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가 보고 있는 이 헨 옷 무더기 속에 들어있는 '참된 통합이다'라고 말해줍니다.

마달레나-벤티밀리아 이탈리아: 벤티밀리아에 살고 있으며 매일 아침 기차를 타고 프랑스 멘토네에 있는 학교에 갑니다. 매일 국경을 넘어 가면서 많은 피난민들을 만납니다. 한번은 피난민 한 명이 내 옆에 앉았고 우리는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그 아이가 나와 같은 학생이라 생각하고 검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미셸 루비넬리- 몬테카를로, 모나코 왕국: 몬테카를로는 연대성을 중요시하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엔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이민자들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국제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벨 지네스티- 니스 프랑스: 영업소에서 획득한 이익금들의 대부분은 벤티밀리아의 피난

민들을 위해 쓰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친구처럼, 한 가족처럼 지냅니다. 다른 조직단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넬리 반 제메르트 수녀님 - 멘톤, 프랑스: 나는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지냈고 고통받은 아프리카 피난민들을 만나기 위해 벤티밀리아에 갔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요리도 하고, 옷도 만들지만, 무엇보다도 들어주고 내 마음을 선물합니다. 왜냐하면 내 일생에 있어서 복음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어떤 작은 것이라도 나의 작은 한 형제에게 해 준 것은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이것은 내 삶의 지침이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달레나- 벤티밀리아 이탈리아: 나는 이탈리아에 살지만 프랑스사람이에요. 국경이 어디냐고요? 국경이 무엇인가요? 그런데 국경은 한 민족을 막고 있습니다. 국경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그들이 보입니다.

토니 알바레스 신부님: 우리 모두는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공동선을 위한 확신, 그 깊은 원의를 강하게 느낄 때, 실제로 아주 중요한 것을 시작 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 이 확신은 하느님과 형제를 위한 사랑이 되겠는데, 그것은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 3. 인도- 한계를 넘어서서 춤추기

로베르타: 이 합동 전화에서 듣고 또 앞으로 들을 여러 스토리에서 공통적인 점을 발견할 것인데요, 그것은 많은 문제들과 사건 앞에서 단지 바라보고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여러 방법으로 모든 주위 사람들을 참여케 하면서 변화를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인도의 봄베에서 마유어의 경우입니다.

마유어 만다브카르, 무용감독: 나의 부모님은 내가 무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죽고 없을 때 춤 추어라”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떠나셨습니다. 엄마는 내가 16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그 다음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서류상으로 확인된 것이 하나도 없었기에 그 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새로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상황을 직면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고 이에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무용을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개인 무용실을 차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나는 무용을 전문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에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전문대학에 다녔으며 일요일에는 무용연습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학비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나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봅니다. 이곳 가정들은 감당을 못합니다. 무용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배우러 올 때 그들의 진정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돈이 없더라도 걱정하지마. 너의 재주를 가져와.”(환경)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무용 워크숍에 거의 150명의 아이들이 와요.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디다. 단지 그들에게 무용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음악)

나는 아이들에게 특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보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내게는 너무 어려웠고, 처음엔 단순하게 불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정이 무용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젠 페스티벌에 참석했었는데 참으로 거대했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몇 천명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면서 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돌아오면서 내가 맡은 반 아이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렇게 살고자 시도했습니다.

아르야 아리우가데, 학생: 마유어는 나를 도와주고 무용대회가 있을 땐 내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옵니다. 만약 춤 동작이나, 표현 등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정말 훌륭하고 친절합니다.

빌손, 학생: 내가 무용을 하기 시작했을 때 수업료를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집 사정이 안되어서 더 이상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마유어는 "걱정하지 말고 무용 잘 배워. 나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마유어: 나의 학생들 중 몇 명은 안무가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프로그램, 광고에도 출연했고 그리고 소규모의 공연이나 경기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무용학원 아이들은 내 가족입니다. 이 아이들은 나의 아이들이고 그들의 부모는 나의 부모입니다.

로베르타: 고마워요 마유어. 마유어가 지금 인도에서 이 합동 전화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큰 인사를 보냅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것, 울타리를 무너트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7월 6일에서 8일까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젠 축제의 큰 테마입니다.

후고: 이미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96개국에서 6,000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물리적, 지리적 경계 차원에서 본 프로젝트와 경험들을 교환하게 될 것이며, 뿐 만 아니라 문화, 경제, 사회적차원에서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출발 준비를 하고 있고, 아주 다른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알기 원하는 젊은이들이 아시아의 여러 도시에 이미 도착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방법으로 젠페스티벌을 돕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스크린에 보이는 계좌, 또는 합동전화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속해서 지지해 주실 수 있습니다.

Intestato a: COMITATO INTERNAZIONALE ORGANIZZATORE GENFEST 2018

Codice IBAN: IT95N0895139370000000704514

Banca: Banco di Credito Cooperativo San Barnaba di Marino

Indirizzo: Via di Frascati, 292/a 00040 Rocca di Papa (RM)

Cod. BIC/SWIFT: ICRAITRRQF0

NDG: 01049578

로베르타: 소식 하나 더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합동 전화는 특별하게 마닐라에서 있게 되며 전부가 젠 축제에 관한 것이 되겠고, 또한 그 동안 마닐라와 필리핀에서 전개되어온 활동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합동전화는 7월 8일 20시, 오늘과 같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니다.

후고: 그럼 페르난도 몬타냐가 있는 캐나다의 오타와로 옮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페르난도? 거기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페르난도: 좋아요. 우리는 이곳 오타와에서 이탈리아 문화 주간을 맞이해서 “끼아라 루빅: 보편적인 형제애의 이탈리아 여성”이라는 타이틀 가지고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 행사는 44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올해는 세계 속의 이탈리아 여성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자 했는데 이 점에서 형제애의 사절로서 끼아라를 소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단지 끼아라를 기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EOC 기업가들, 이슬람 형제들, 소피아 대학 학생들, 캐나다 교황대사, 몬시뇰 루이지 보나지 등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날 끼아라의 현존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캐나다처럼 두드러지게 다 문화적이고 다 민족적인 지역 안에서 현시대에 적합한 만남의 길의 하나로 일치의 영성이 제안되었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은 이슬람 친구들이 끼아라의 이상과의 만남에 대해 나눌 때였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하루였고 지금 모임을 마무리하는 순간입니다.

후고: 페르난도 감사합니다!

페르난도: 차오!

로베르타: 차오!!

#### **4. 이탈리아- 원천으로 가는 성지순례**

로베르타: 그리스도교, 힌두교 학자들이 북 이탈리아 트렌토 산에서 함께 있다는데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원천으로 가는 성지순례”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한번 가 볼까요?

#### **스테파니아 타네시니의 ‘원천으로 가는 성지 순례’**

**촬영: 로렌조 조바네띠**

비누 아람, 산티 아스람 센터 책임자: 인도, 코임바토르: 끼아라가 코임바토르를 방문한후 같이 차를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나요. “끼아라, 여기서 그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곤 나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미노띠, 이제 어떻게 앞으로 나갈 건가요?”

스테파니아(스피커): 현재 우리는 인도에 있습니다. 때는 2001년 1월이었고 끼아라 루빅께서 산티 아스람 센터의 유명 인사이며 뭄바이의 학자들인 힌두교인들을 만났습니다. 산티 아스람 센터는 간디의 정신을 이어가는 센터입니다

이렇게 깊은 관계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끼아라는 그들에게 1949 년 여름, 트렌토 지역 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특별한 신비로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자 결정합니다.

우베르투스 블라우마우저, 신학자 - 아바학교: 포콜라레 운동의 학술 연구 기관인 ‘아바 학교’ 멤버들과 우리들 친구인 힌두교 신학자들이 끼아라가 ‘천국 49년’을 경험한 이곳 토나디코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끼아라가 체험한 이 특별한 경험에 좀 더 깊이 들어 가고자 합니다. 저희

들에게는 성령의 입김을 느낄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이며 특별히 모두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현존도 느낍니다.

슈바다 조쉬, 철학 교수 - 봄베이 대학, 인도: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은 근본적인 것입니다. 성인(聖人)이 우리에게 알려 주고자 하는 것을 새로운 빛 아래에서 깨닫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원천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힌두교에서도 실행하는 아름다운 관습입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거룩한 신(神)에 대한 사랑, 그 존재 안에 있다는 마음, 그리고 그 존재와 깊이 하나되고 싶은 열정은 똑같습니다.

수달라이칸나 안디압판, 간디 철학 교수 - 봄베이 대학, 인도 : 나는 오늘 아침 끼아라가 영신적, 특별히 신비적 명시를 갖게 된 성당을 보았습니다. 내가 성당 안에 들어가면서 마치도 나 자신의 성전에 들어가는 듯했습니다.

칼란 슬립퍼, 성공회 신학자- 아바학교: 우리를 여기에 함께 모이게 해 준 것, 모든 것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공급해 주고, 서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며, 함께 경험하는 신비 안으로 우리를 더 깊이 들어가게 해 줍니다.

비누 아람, 산티 아스람 센터 책임자, 코임바토르, 인도: 무엇이 새롭냐고요? 끼아라가 이미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가 영감을 얻게 된 이 아름다운 장소, 놀라운 풍경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합니다.

디팔리 바넷, 산스크리트어 교수 - 뉴델리 대학, 인도: 끼아라가 사랑에 대해 말씀하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분은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셨죠. 우리는 복잡한 문제들을 지니고 있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 한 메시지를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어떠한 작은 것을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이를 위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저를 다시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카루나 사가리, 전통 무용 선생님- 인도: 한번도 끼아라를 본적이 없지만 산티 아스람을 통해 포콜라레를 알게 되었고 그때 나는 놀라운 말 한마디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암샤" 라는 인도의 전통적인 말인데 한 현실의 여러 측면을 의미합니다. 나는 포콜라레 회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게 될 때 그들 안에서 "암샤", 끼아라의 여러 측면을 보게 됩니다.

린감 라이아, 간디그람 대학 - 인디아: 끼아라는 어떤 의미에서 유일한 존재입니다. 사랑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켰고, 사랑으로 사회를 바꾸고 보여주셨습니다.

로베르토 카탈라노, 포콜라레 운동 타종교와의 대화 본부: 순수한 그리스도 영성인 우리 카리스마의 원천으로의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 경험은 힌두교의 특성과 정밀성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다원주의안에서 서로를 만나게 해 줍니다. 서로를 받아드리고 이 그리스도 영성의 원천을 받아들입니다.

스테파니아: 만약 끼아라가 당신 앞에 계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비누 아람, 산티 아스람 센터 책임자, 코임바토르, 인도: 감사하다고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스승으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 그를 무한한 사랑의 원천으로 여긴다면, 나도 그가 한 것처럼 할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내 것을 보태며 그의 본을 따를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지 순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5. 브라질, 캄포스 도스 고이타카제스 - 자신의 백성을 위해 목숨을 주기

후고: 우리는 오랫동안 투쟁하고 있는 노에미아 (Noêmia)의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는 토지를 압수당한 농민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목숨의 위협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30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노에미아 말가렌: 이 농장을 매입했을 때 저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느님께 “왜 하필 이곳인가요? 저는 순수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폭포가 있는 곳을 청했는데, 당신은 모래투성이인 데다 갈색 물이 흐르는 땅을 주십니까?”

당연히 답이 없었지요. 답은 10년 후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온전히 복음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스피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주 북부 ‘상 조아오 다 바라’ 제5지구.

아수 항구 산업단지 구성은 2천명의 그 지역민들을 놀라게 했다. 그런데 미래에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은 즉시 실망으로 바뀌었다. 한 주정부의 법령에 따라 12곳의 소규모 지역 농장 수용이 승인됐다는 것이다. 많은 가정들의 땅이 강제로 몰수당했고, 단지 노에미아 말가렌의 땅만 건재했다.

노에미아는 은퇴 교사이며 남편과 10년 이상 ‘시초 도 비리카’에서 살았다. 유기농 재배에 관한 지식 덕분에 지역민들이 많이 경청하는 라디오 프로에 참여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재산 몰수 저항 운동’을 이끌었다

노에미아 말가렌: 어느 날 상파울루의 한 대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근심으로 가득 찬 한 농부가 길에서 저를 막고 말했습니다. “노에미아 부인, 우리를 도와주세요! 부인 만이 우리를 구해 줄 수 있어요”. 우리 땅을 다 몰수하려고 해요!” 구원을 요청하는 절망에 찬 한 사람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안심하세요.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겠어요”. 프로그램 중에 그 주제를 언급했는데 즉시로 방송이 중단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책임자는 이런 잡음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는 결코 다루지 말았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하려고 하는 이 투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계속해 나갔습니다. 제가 첫 모임을 주선했으므로, 비리카 농장이 ‘아수’ 항 사업에 저항하는 첫 깃발을 들었습니다. 항구 본 출입구가 여기므로 모두가 이 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천막을 짓고, 현수막과 깃발을 올리고 150개 가정이 순번제로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자기 생각만 하고, 투쟁하기 위해서는 한 그룹이 되어야 한다는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투쟁과 고통을 통해,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가 되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형제는 연대적이므로 지금은 처음에 비해 서로의 연대감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아직도 저항하는 한 가정이 있지만,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한 채 이미 땅을 잃었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데, 우리 가족은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큰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4번 협박을 받았는데, 우리 가족들은 어느 순간 제가 살해됐다는 소식을 듣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이 것이 정말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여쭙봤나요? 이제 멈출 때도 되지 않았나요? 이제 당신 몫은 충분히 하지 않았나요?" 투쟁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내가 살아 있는 한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존중받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이 투쟁은 매우 불평등합니다. 한가지 아세요? 역사를 다시 써야 합니다. 지금의 역사를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각자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그 때 저는 믿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과, 역사, 꿈을 계속 이루고 싶습니다. 땅을 빼앗긴다는 것은 꿈과 계획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수' 항이 자신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면, 다른 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박수갈채를 보낼 것입니다.

**자막:** "우리를 매장 시키려 했지만, 그들은 우리가 씨앗이라는 것을 몰랐다."

**남자:** 노에미아 부인이 여기 왔을 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몰랐죠..... 나는 그녀가 하늘에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막:**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수' 항 건설은 완공되지 않았다. 몇몇 농부들은 땅을 되돌려 받았고 몇몇은 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수용된 땅의 85%는 아직 활용되지 않았고, 많은 농부들은 아직도 그들의 권리인 토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후고:** 노에미아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 **6. 이탈리아 - 특별한 하루**

**후고:** 우리 대부분이 지난 5 월 10 일, 교황님이 로피아노를 방문한 특별한 하루를 미디어를 통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로베르타:** 그날 교황님은 Loppiano 시민과 포콜라레 운동과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럼 Emmaus와 Jesus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날 부각된 주제들을 같이 살펴 보도록 합시다.

(음악-자막 : 2018년 5월10일 로피아노)

**스피커:** 잠시 후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에 퍼져있는 포콜라레 운동의 소도시 25개 중 첫 번째로 태어난 로피아노 (Loppiano)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교황이 포콜라레 운동의 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음악-자막: 1984년 8월19일 로카디파파)

1984 년 8 월 요한 바오로 2 세는 로마 외곽 도시 로카 디 파파 포콜라레 운동 국제 본부에 차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음악) 끼아라 루빅이 교황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문을 포콜라레 운동 역사에 남는 "특별한 만남"이라고 정의 합니다.

그날로부터 34 년 후, 5 월 10 일, 피렌체 토스카나 지역 언덕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내리십니다. 짧은 방문이지만, 아주 풍부한 하루를 이 이미지들을 통해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하루 - 프란치스코 교황 로피아노 방문)**

**스피커:** 우리는 이 '특별한 하루' 중 몇몇 순간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Maria Voce (Emmaus) 와 Jesús Morán과 함께 교황님의 방문이 우리 운동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

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파니아 타네시니, 커뮤니케이션 본부 - 포콜라레 운동: 엠마우스, 먼저 이 교황님의 Loppiano 방문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마리아 보체 (엠마우스), 포콜라레 운동 회장: 자, 어떻게 시작되었냐고요? 사실 그건 우리도 몰라요. 교황님께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 교황님께서 Loppiano에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것은 '깜짝' 소식이었고 얼마나 기뻐는지 몰라요. 그래서 즉시 우리는 '이 방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교황님이 오시는 날까지 100 일이 남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준비는 복음의 삶, 서로 간의 사랑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로피아노에 오셨을 때 복음에서 태어난 백성, 끼아라가 항상 생각했던 복음을 사는 그 백성을 찾아보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며 노력했습니다. (음악)

스피커: 아침 일찍부터 이탈리아 뿐 아니라 더 멀리서 온 사람들로 거리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테오 도코스 (Maria Theotokos) 교회 주변에는 약 7,000 명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가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TV 및 인터넷을 통해서 4 개국 언어로 동시 통역되는 스트리밍 덕분에 로피아노 이미지는 전 세계로 전달됩니다.

스테파니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Loppiano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헤수스 모란, 포콜라레 운동 부회장: 많이 흥분했죠. 제가 축구하면서 놀았던 그 잔디 밭에 교황님께서 헬기에서 내리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치 못했어요. 흥분했지만 동시에 기쁨과 평온을 느꼈습니다.

엠마우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물론 Loppiano가 교황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Loppiano는 마리아 사업회 전체를 뜻하고, 따라서 Focolare 운동 전체가 교황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님이 그 잔디 밭에 발을 들여 놓은 그 순간, 헬리콥터에서 내리는 그 순간, 나는 교황님이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 교황님은 우리를 당신 마음에 품고 우리를 인류라는 우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교황님은 교회 안에서 이 인류를 하나되게 하도록 부름을 받으신 분입니다. [...] 그 순간 어떤 두려움도, 어떤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교황님께서 나를 맞이하시고 나와 함께 사업회 전체를 맞이하심을 느꼈습니다.

스피커: 여러 그리스도 교회와 타 종교의 신도들, 종교가 아닌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로피아노 주변 지역의 사람들도 많다.

이 다양성은 Loppiano의 정체성이며 일치된 세상의 한 모습이다.

여러 교회 인사들과 사회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로피아노가 속해있는 피에솔레 교구의 교구장을 40년이 넘게 하신 루차노 조반네티 주교님을 포함하여 현재 교구장이신 몬시뇰 마리오 메이니. 그리고 현재 Figline와 Incisa Valdarno의 시장인 줄리아 무냐이도 함께 하셨다.

먼저 교황님은 마리아 테오 토코스 교회에 들어 가셔서 잠시 기도하신다.

그리고 아시아인 모습을 지닌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 앞에 꽃다발을 선사한다. 이 예술작품은 힌두 예술가가 키아라 루빅에게 한 선물이다. (음악)

엠마우스: 사랑하는 프란체스코 교황님. Focolare 운동에 속해 있는 모든 이를 대신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교황님의 이 방문에서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을 봅니다. (박수 갈채)

스피커: 마리아 보체는 일치된 세계의 한 작은 모형인 소도시에 대한 끼아라의 직감으로부터 시작하여, 65개국으로부터 온 850명의 Loppiano의 시민들, 공부하며 일하는 이 도시의 다양한 면을 간략히 소개한다.

엠마우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집, 가족 그리고 어머니의 현존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 이 도시의 이름이 마리아폴리, 마리아의 도시라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람은 마리아께서 이도시를 거느리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께서는 저희에게 '마니피캇'을 프로그램으로 주셨고, 고통받고, 폭력과 부의 길에서 헛되이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과 도시의 문을 열도록 매일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교황님, 4년전 교황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는 목표를 높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여기 와서 보아라"라고 모든이에게 자신있게 말해 주고 싶습니다. 서로 간의 사랑을 이 도시로 법으로 정한다는 것은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고 역사의 새로운 장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박수)

교황님: 여러분의 환영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그리고 먼저 소개한 마리아 보체께도 인사합니다. 환영인사의 말씀이 매우 분명해요. 모든 것이 명확합니다! 아이디어가 분명한 것이 보입니다! 이 작은 "도시", 로피아노에서 여러분과 한자리에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로피아노에서는 누구나 자기 집으로 느낍니다!

스피커: 교황님께서서는 질문을 받고 도전과 격려로 가득한 답을 주셨다.

아우렐리아 냄브리니: 현재 저희는 끼아라와 함께 걸어온 창설 시기 이후, 우리는 지금 새로운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열정적인 시기가 지났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초창기의 예언을 현실에 구체화시키기 위해 걸어야 할 길을 찾는다는 것은 분명 훨씬 더 어렵습니다. 교황님,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프란체스코 교황님: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수) 그리고 특별히 감사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런 기적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믿음이 기적을 이루어 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 둘씩 이어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자연스럽게 히브리인들에게 전한 편지의 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공동체는 여러분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이렇습니다. "초심을 기억해 보십시오" [...]. 기억을 명심하세요. " [...] 이런 기억의 틀을 지니고 산다면, 숨통을 트고, 앞으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기억을 지워 버린다면 당신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기억이야말로 삶의 기본 구조입니다. [...]

스테파니아: हे수스, 교황의 연설의 많은 부분은 '기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끼아라는 우리에게 '인류의 일치'라는 매우 거대하고 중요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기억의 보존이라는 것은 카리스마를 기억하라는 뜻인데 이것은 오늘날 사업회에, 그리고 더 나아가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돌변하는 인류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헤수스: '기억'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카리스마의 역사에서 보면 '기억'은 초창기의 하느님의 경험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

고 이것은 이상하게도 이런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기억을 보존하면 할수록 카리스마 자체가 더욱더 현실화됩니다. 현재 일어나는 현상이죠. 일치의 영성 즉 '일치의 문화'의 핵심으로 돌아가면 갈수록 인류를 하나의 가족으로 이루려 했던 끼아라의 열정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

교황님은 마치 폭력 사태가 모세관처럼 확산되어 세계 대전이 여기저기서 조각조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모세관같이 확산된 활동이 아니면 어떻게 이 현상에 맞닥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말했듯이 바로 여기저기서 조각조각 일어나는 '평화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인류라는 가족을 위해 정치에 앞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심오한 차원에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이나 제도적 차원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끼아라가 가졌던 위대한 꿈, 인류를 가족으로 보았던 꿈의 현실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일치의 카리스마는 하느님께서 보내 주신 격려입니다.

스피커: 교황님은 일치의 영성은 "우리"라는 영성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여기 계신 한 신부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황님, '나'의 반대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즉시 '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부님이 "아닙니다. '나'이건 '너'이건 모두 '개인주의'의 말인데, 그 반대말은 '우리'입니다." (박수) 이 '우리'라는 영성이야말로 여러분이 앞으로 내 세워야 하는 말입니다. 이 것이 온갖 이기주의와 이와 관련된 이해타산에서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라는 영성은 단지 영적 과제가 아닙니다. 이 영성을 살면서 확신과 용기를 지니고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차원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해석하고 적용시킨다면 오히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개별 인간 뿐 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관계들까지 구원하셨습니다.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Evangelii gaudium*, 178)

스피커: Loppiano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과 함께, 우리의 보는 관점을 바꿔야한다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로피아노의 역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초창기에 있습니다.(박수) 역사의 고틀에 던져진 작은 씨앗이 이제 막 파릇파릇 싹을 틔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실한 뿌리를 내려야 하며 속이 꽉 찬 열매를 맺어 오늘날의 교회가 살아야 할 선교와 예수님 말씀의 실질적인 구현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겸손과 개방, 협력과 위험을 무릅쓸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박수)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관건은 결국 창의적인 충실함에 있습니다. 본래의 영감에 충실히 남아 있는 동시에 함께 성령의 숨결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제안하시는 새로운 길에 과감하게 들어서는 것입니다.

스테파니아: '로피아노의 역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시고 또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은 초창기에 있습니다." 엠마우스, 많은 인터뷰에서 교황님의 로피아노 방문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회의 "전"과 "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과 "후"가 있고, 우리가 초창기에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나요?

엠마우스: 이제 우리는 "후"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황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교황과 함께 있었다는 그 기쁜 순간을 되새기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네, 그것은 분명히 특별하고 말 할 수 없이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황님은 이제 막 시작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역사 앞에, 미래 앞에 서게 했습니다. 막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앞으로 나아가다'

는 무슨 의미입니까? 교황님의 말씀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운동뿐 만 아니라 우리 사회안에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고 "내가 무료로 받은 이 복음의 씨앗의 불을 어디에 뿌릴 있을까? 라고 말하면서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와 모든이 사이의 서로 간의 사랑을 통해 모든 차원에서,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마지막으로 꼭 해 주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 '하느님의 어머니 Theotokos' 성지 앞에 모여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내려 다 보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평신도였음을 잊지 마십시오. (박수) 어머니이자 예수님의 첫 제자이신 그분은 평신도였습니다. 여기에 큰 영감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권고하고 싶은 게 있는데, 복음을 펼쳐서 갈등이 드러나는 일화들을 찾으십시오. 예를 들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살펴 보십시오. 마리아는 응답하며 개입하십니다. "하지만 신부님, 그런 일은 복음에 쓰여 있지 않잖아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리아가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어떤 행동을 취하셨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야말로 충실함과 창의력의 여인, 용기와 신념의 여인, 온갖 것을 견디어 내는 인내의 여인입니다. 이분을 항상 바라보십시오. 평신도이자, 예수님의 첫 제자로서 당신 아들의 삶 속에 갈등과 어려움이 얽힌 모든 상황에서 성모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테파니아: 프란치스코는 마리아의 평신도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언급을 했습니다.

엠마우스, 이것이 엠마우스와 우리 운동 전체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엠마우스: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준비하신 담화문을 제쳐 놓으셨습니까. 마리아에 대한 언급은 담화에 쓰여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교황님은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평상시와 같이 마리아에게 꽃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성당에서 나올 때 모여 있는 군중들 사이에서 마리아를 보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마리아에 대해 언급하게 된 동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즉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고, 백성들 사이에 있었고, 백성은 교회이었습니다.

그 다양한 백성들은 가족, 젊은이, 어린이, 사제, 타종교인, 다른 그리스도교인 들이었습니다. [...] 그리고 감히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의 현존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 주었고, 말해 준 그 순간에 우리를 '말씀하신 누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즉 마리아가 지닌 자질들을 애기해 주었습니다. 솔직함, 인내, 용기, 지구력. 그런 다음 복음에 있는 갈등의 순간들을 언급하셨는데, 종종 사도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이었죠. 예를 들어, 군중이 예수님을 언덕에서 밀쳐 던지려고 했던 순간, 성전에서 팔고 사는 상인들과 직면했을 그 순간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주도인물이십니다. 그러면 그 순간 마리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마리아는요? 교황님은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보십시오."라고 말하십니다. 오늘날 인류의 갈등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본분 즉 마리아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위로해 주고, 이해해 주며 상황을 뒤집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황님이 보았던 것이며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테파니아: 어느 순간 교황님께서 서약에 서명하는 것을 보았는데, 거의 지나쳐 갔는데요, 그런데 이 것은 로피아노 뿐 아니라 다른 소도시 그리고 포콜라레 운동에 속해 있는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근본적인 가치가 있는 제스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니는 보편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간단한 서명에 지나지 않습니까?

헤수스: 아닙니다, 단순한 서명이 아닙니다. 사실 그 순간을 강조하고 싶었는데 시간 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했지만 아무도 그것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황님께서 서명하신 그 종이를 들어 올려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교황님은 소도시 시민들의 서로 간의 사랑의 서약에 서명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서약은 교회적인 차원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죠. 이 서약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먼저 나는 인류-가족에 대해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기본을 두고요? 기본은 이 서약입니다.

스테파니아: 헤수스, 교황님께서 로피아노에서 아주 편안하시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헤수스: 네, 처음부터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스페인어로 인사했어요. "Bienvenido Santo Padre, 교황님 환영합니다!" 교황님께서 아르헨티나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투리로:"Como andas, 잘 지냈어요? " 라고 답하셨는데 교황님은 이런 인사로 즉시 우리를 편안하게 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쁨이 걸로 나타나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매우 자유롭게 말하셨습니다. "교황님, 우리가 너무 피곤하게 해 드렸죠?". "내가요? 매우 즐거웠습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털어 놓았는데 신뢰는 신뢰이니까 지켜야죠.

## 7 결론

후고: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로베르타: 그럼 마닐라에서 만나요! 7월 8일 일요일 이태리시간으로 오후 8시 젠축제 특별 합동전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베르타 후고: 마부하이! 차오!